Open Source Software

그리고 정부

이 민석

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

Open Source Software

- 오픈소스를 보는 세가지 관점
  1. 기술 확보와 혁신의 원천
  2. 소프트웨어 기술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
  3. 지속가능한 생태계

- 오픈소스의 주요 플레이어
  - ✓ 커뮤니티
    - 매우 자생적인 사용자, 개발자들의 조직
  - ✓ ~~ Consortium, ~~ Alliance, ~~ Group, (~~ Foundation)
    - Lock-in을 배제하고 직접적이고 집단적인 ROI를 추구하는 조직들
  - ✓ 개별 산업체
    - OSS의 다양한 이득을 추구하는 조직
  - ✓ 정부
    - 표준을 추구하고,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조직
    - 미래의 시장 환경에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 투자를 하는 조직
  - ✓ ~~ Foundation
    - 위 플레이어들이 직접 해결할 수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조직
    - 각자의 철학과 rule을 유지

그간 정부의 역할

- 결과물 관점에 집중된 투자
  - ✓ Star 개발자 양성 → 글로벌 커미터
  - ✓ R&D/교육 지원 체계의 부실
    - –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원
    - – 과정보다 종료 시점의 결과, 운영보다는 하드웨어에 치중
  - ✓ 개발자에 대한 스킨쉽 부족
    - – 커뮤니티가 가지는 산업적 가치에 대한 저평가

- 힘이 부족한 정책
  - ✓ Open Standard 도입/유지 실패
    - – HWP, Active-X, NSAPI
  - ✓ 조달 시장에서의 의지 부족
    - – Legacy System에 대한 과도한 편향성

정부 in 관점 1 (기술 확보와 혁신의 원천)

- ~~시장에서 Hot 한~~ 원천 기술의 확보에 투자

  - ✓ 고객이 미래(5+년 후)인 기술을 Open Source로 R&D
  - ✓ 연구소, 대학 등에 장기적 연구 지원
    - Negative 시스템 : 기본적으로는 모두 Open
  - ✓ 생태계 유지에 관한 (마케팅) 비용까지 부담
    - 주도적인 생태계 유지 노력으로 세금 효과성 확보
  - ✓ R&D의 by-product를 적극적으로 사업화 유도
    - 시장에서 Hot한 영역과의 지속적인 결합
  - ✓ 기술 이전이 아닌 인력 이전을 추구
    - Open Source 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..

정부 in 관점 2 (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)

- 공공 서비스의 제공/조달에서의 공정성 담보

✓ Vendor-Neutral한 표준만을 사용
- 사용자(시민)에게 Platform/Vendor 선택권을 부여
- Open Standard (document, web 및 service 접근성, …)

✓ Open Source 대안 우선 검토
- 66%의 민간 기업은 Open Source 대안을 먼저 고려, 정부는?
  (ref, 2015 BlackDuck & NorthBridge 조사)
- (기관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) 객관적인 TCO 필요

✓ Proprietary → Open Source 전환 사업 사례 공유 확산
- 기술 비용과 관행 비용 양쪽 관점에서 득실을 분석
- Open Source 방식이 잘 맞는 영역을 발굴 확산

✓ 공공서비스 Startup 장려
- Open Source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의 빠른 개발

정부 in 관점 3 (지속 가능한 생태계)

-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답이라는 확신

✓ ~~한시적인~~ Open Source Software 교육 지원
- 대학 교육에서의 오픈소스 활용/개발 교육 Push
  - 산업체에서의 수요 반영
- 학생 / 교수 / 초급 개발자 대상의 오픈소스 Practice 교육
- 초중고에서 오픈소스 (소프트웨어) 정신 교육

✓ ~~한시적인~~ Open Source 커뮤니티 개발자 지원
- (전업) 글로벌 커미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
  -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 더해, Camp 등 운영
- 유력 커뮤니티의 글로벌 marketing 지원
  - 유관 Conference 발표, 전시 등

✓ ~~한시적인~~ Open Source 라이선스 검증 지원
- 민간의 Open Source 사업/연구자들의 잠재적 Risk 해소
  - 중소 임베디드 업체, R&D 기관 등
- SW 개발 프로세스처럼 OSS 거버넌스도 지원

정부, 정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

- ✓ Software는 정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확실한 도구라는 믿음
- ✓ Open Source Software가 대세라는 인식
  - 소프트웨어 = 오픈소스 소프트웨어
  - 개발자 = 오픈소스 개발자
- ✓ 다른 모든 지원 정책도 좋지만
- ✓ 대세적 문화 현상으로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
  - 독립 영화 지원하듯이.. OSS 커뮤니티에 지원
  - 참고: 2015년 독립/예술/다양성/가족 영화 지원 총액 : 87억원
    - (영화진흥위원회, 2015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)

감사합니다.

Q&A